

근로장애인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종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자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애인의 고용특성과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χ^2 ,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그리고 가구원 수가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특성 변수에서는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 변수 중에서는 고용형태, 업종, 직종, 취업기간, 직장 내 지위 등이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자체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며, 근로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들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장애인 빈곤, 근로빈곤층, 근로빈곤장애인, 빈곤결정요인

1. 서론

어느 사회에서나 장애인, 여성,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의 하나이다. 빈곤문제는 인적자본이 취약하거나 사회적 여건이 미비하여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적인 이들에게 공공부조를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거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의 빈곤 문제의 해결 역시 장애급여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거나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병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집행되고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저소득, 빈곤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이는 도시근로가구 월평균소득 311.0만원(2005년 2/4분기)의 50.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저소득 문제는 장애수당, 장애연금과 같은 최소한의 소득보장정책이 미흡한 데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정부 지출은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에서 OECD 주요국 평균 지출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7.3%(공적급여는 13.6%)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OECD 주요국의 근로소득의 평균 구성비 54.9%(공적급여는 41.1%)에 비해 매우 높다(OECD, 2003). 즉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정책이 매우 미비하며, 근로가 이들의 중요한 소득원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로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매우 낮아 여전히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114.9만원으로 이는 전체 상용종업원(2005년 6월) 월 평균임금 258.0만원의 44.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직종은 단순노무직(27.6%), 농·어업(19.0%), 기능원·관련 기능근로자(12.3%) 등 노동집약적 저임금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형태를 살펴보더라도, 상용근로자는 23.5%에 불과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임금근로자(39.0%), 임시근로자(15.5%), 일용근로자(18.8%)의 비중이 높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근로 장애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고용특성, 즉 저임금, 열악한 취업직종,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장애인의 소득에서 근로가 가지는 중요성과 달리 취업 자체가 이들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이 되지 못하며, 빈곤한 장애인들을 빈곤에서 탈피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로 장애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로장애인들의 일자리 질이나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다루어왔으며(이재라, 1999; 김도영, 2000; 박윤진, 2004; 한민아, 1998; 이승신, 2003), 그 외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일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선우, 1997; 권성옥, 2003), 고용차별(어수봉·최영섭, 1995; 유동철, 2000; 강동욱, 2002), 직업훈련 등과 같은 고용서비스의 성과 분석(유동철, 2000; 이병화, 2006), 직장 적응, 근속 및 이직에 관한 분석(이체식, 2005; 한미현, 2004) 등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에서는 근로자의 저임금, 고용상태 등 고용의 질을 분석해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성가구, 노인가구에 대한 접근은 있었으나 장애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빈곤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한국노동패널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도시가계조사 등)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들, 특히 근로장애인들의 빈곤 문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 장애인들이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저기술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기반하고 있어 빈곤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근로빈곤 장애인들의 특성과 빈곤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근로 장애인들의 고용 이후의 경제적 상황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1) 장애인의 빈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관련 정책이 여러 법규와 제도를 통해 집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빈곤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남기민, 200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이 매우 미흡하고,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이 빈곤에 처할 위험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것은 이들의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들에서 잘 나타난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57.2만원으로 이는 도시근로가구 월평균소득 311.0만원(2005년 2/4분기)의 5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달리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가구의 평균 소득이 비장애인가구의 93~97% 수준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의 경우에도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가구 소득의 70~80%인 점을 감안할 때(OECD, 2003)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저소득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에서도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층과 잠재적 복지수요층에 속할 비율이 각각 높게 나타나 장애인들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층에 속할 비율이 16.0%로 비장애인 가구 3.2%에 비해 5배 이상이 높다. 또한 잠재적 복지수요층으로 볼 수 있는 복지수요잠재층(I, II)에 속할 비율은 비장애인 가구가 25.0%인데 비해 장애인 가구는 35.6%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층에 속하는 비장애인 가구가 71.7%인데 비해 장애인 가구는 48.4%에 불과해 장애인들이 절대빈곤층 혹은 복지수요잠재층에 속할 위험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장애인 가구의 계층별 분포

(단위: 가구, %)

		수급층	복지수요잠재층		일반층	전체
			I	II		
비장애인가구	가구수 비율	731	3190	2460	16,190	22,571
		3.2	14.1	10.9	71.7	100.0
장애인 가구	가구수 비율	346	501	267	1,047	2,161
		16.0	23.2	12.4	48.4	100.0
합계	가구수 비율	1,077	3691	2727	17,237	24,732
		4.4	14.9	11.0	69.7	100.0

주 - 복지수요잠재층(I): 최저생계비대비 160% 미만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60% 미만

- 복지수요잠재층(II):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60% 미만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60% 이상

- 일반층: 소득이 최저생계비 160% 이상인 집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 차상위층실태조사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층에 속할 비율이 18.0%로 비장애인의 2.6%에 비해 8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개인 단위의 장애인들이 가구단위보다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할 수 있다. 또한 복지수요잠재층에 속할 확률 역시 비장애인 22.7%에 비해 장애인들이 35.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층에 속할 비율은 비장애인이 74.8%인데 비해 장애인은 46.8%에 불과해 개별 장애인 역시 가구 단위와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층과 복지수요잠재층에 속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의 빈곤은 장애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정도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장애인의 61.3%가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고, 32.4%는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중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5.9%, 자신이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0.4%에 불과해 장애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의 근로와 고용 특성

전통적으로 노동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김영란, 2005). 이는 장애인에게도 동일하며, 특히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근로 장애인들의 고용특성, 즉 저임금, 열악한 취업직종,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취업 자체가 이들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이 되지 못하며, 빈곤한 장애인들을 빈곤에서 탈피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장애인의 특성 중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하나는 저임금이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114.9만원으로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 258.0만원('05년 6월)의 44.5% 수준이다. 이러한 근로장애인의 저임금은 2005년 차상위층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85.8만원('03년)으로 같은 해 전 직종 월평균임금 165.1만원의 52.0%로 나타났다. 두 조사 결과 모두 근로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임금 뿐 아니라 소득 증가율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근로장애인의 저임금 문제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장애인의 전 직종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00~'03년간 2.7%에 그친데 비해 비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7.9%로 나타나 비장애인의 1/3 수준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근로장애인의 저임금은 이들의 취약한 고용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근로장애인의 취업 직종은 단순노무직, 농·어업, 기능원·관련기능 근로자를 중심으로 열악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7.6%로 동일 직종 전체 취업자의 10.8%에 비해 2.6배 높으며, 농·어업 종사자 비율은 19.0%로 동일 직종 전체 취업자에 비해 2.3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단순노무직, 농·어업과 같이 열악한 직종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경우 전체 직종 중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장애인의 경우 단순노무직, 농·어업 종사자의 구성비가 높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자는 3.6%로 동일 직종 전체 취업자 10.7%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공 및 사무직은 11.7%로 동일 직종 전체 취업자 24.3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근로장애인들은 종사상 지위 역시 매우 열악하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장애인의 57.8%가 임금근로자이며, 42.2%가 비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가 23.5%, 임시근로자 15.5%, 일용근로자 18.8%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노점을 제외한 자영업자는 28.6%(노점 2.7%), 고용주는 3.1%, 무급가족봉사자는 7.7%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장애인들이 보이는 저임금, 열악한 취업직종,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의 특성들은 2000년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문제로서 근로장애인들의 경제적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00년 장애인들의 임금 수준은 비장애인의 43.1%였으며, 2005년에는 44.5%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임금수준이 향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관리직·전문직 비율은 2000년 2.7%에서 2005년 3.6%로 다소 향상되었으나 단순노무직 비율은 2000년 23.4%에서 2005년 27.6%로 증가하였다. 또한 임금근로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장애인들은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비율이 훨씬 높아 이들의 열악한 고용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3) 근로계층의 빈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빈곤연구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거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 및 규모, 변화 추이에 집중되어 왔다. 근로빈곤층의 특성 및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정책을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폭넓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실태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금재호(2005)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제1차~제6차년도의 자료를 토대로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가구와 빈곤가구에 속한 취업자 개인의 특성을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근로빈곤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 때 빈곤의 위험성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자가구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임금/자영업 혼합가구가 근로빈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영업자는 임시·일용직에 비해서도 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근로빈곤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이나 인천·경기·강원, 부산·경남·울산지역은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고 빈곤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울러 빈곤에 빠지더라도 신속하게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구주의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의 특성 외 근로빈곤가구에 속한 개인 취업자의 특성에서는 이혼·사별·별거하였을 경우, 교육수준이 낮고 현 직장의 취업기간이 짧을수록 빈곤가구에 속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직종으로는 판매직이나 기능원 및 조직원,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빈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때 빈곤가구에 속할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과 연령, 가구주 관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변화추이를 분석하면서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파악한 홍경준(2005)의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빈곤층과는 달리 남성의 비중이 다소 높고, 30~60세까지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보면, 근로빈곤층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 농·어업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순으로 근로빈곤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기타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도소매, 광업 및 제조업의 순위였다. 한편 근로빈곤층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비빈곤층은 물론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 역시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교성과 최영(2006)은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을 새로운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차년도(1999)부터 제7차년도(2004)의 반복측정자료를 개인간(between-person), 개인내(within-person) 2층(two-level)으로 병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수준의 변수들이 근로자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계층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취업형태, 고용업종, 고용직종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외 가구원수, 연령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그리고 저소득층자활사업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임금근로

층의 소득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한 노대명과 최승아(2004)의 연구에 의하면,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무급종사자, 실업자/실망실업자의 빈곤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별 빈곤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상용/고용주일 경우보다 임시/자영업자일 경우, 혹은 일용/무급종사자일 경우 빈곤가수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혹은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취업 여부, 편(부)모가구주 여부, 가구 내 취업인수, 그리고 가구원 수 등의 변수가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실업자이거나 편부모인 경우, 그리고 가구 내 취업인 수가 적을수록 혹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외 개인과 관련된 변수로는 성, 교육수준, 연령 등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빈곤여부와는 다르게 성별은 근로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4).

지금까지 근로계층의 빈곤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근로빈곤층의 결정요인은 크게 개인의 특성, 가구특성 및 고용의 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령, 교육수준,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재호, 2005; EFILWC, 2004). 또한 금재호(2005)는 결혼상태(사별/이혼/별거) 역시 근로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 역시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특성으로는 가구원수, 가구주의 취업여부, 가구의 구조(편부모가구/여성가구/노인가구 등)가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금진호, 2005; EFILWC, 2004). 그러나 가구원수의 경우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김교성과 최영(2006)의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진호(2005)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여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과 같은 종사상의 지위가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금재호, 2005; 김교성·최영, 2006; 이병희, 2005; 홍경준, 2005),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가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덕순, 2005; EFILWC, 2004). 또한 취업기간, 취업직종, 업종 역시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교성·최영, 2006; 홍경준, 2005). 그 외 근로시간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홍경준, 2005), 저임금 역시 근로빈곤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EFILWC, 2004).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한 「2005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용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 조사에서는 4,281개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15,54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장애특성, 근로형태, 취업직종, 임금, 근속기간 등 고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및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근로장애인의 빈곤여부이다. ‘근로장애인의 빈곤은 근로장애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가구소득은 근로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¹⁾으로 측정한다.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통해 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절대빈곤선의 기준을 통해 빈곤선을 결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저생계비는 2005년에 계측된 것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조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 요인들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개인특성, 가구특성, 장애특성, 고용의 질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특성이 추가되었다.

개인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지역, 구직기간 변수를 포함한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남성을 기준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결혼상태는 응답자의 결혼상태를 의미하며, 미혼, 배우자 있음, 이혼 및 사별로 나누어진다. 이 변수는 미혼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지역은 응답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되며, 수도권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으로, 연속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응답자 학력을 의미하며, 범주별로 측정된 변수를 연속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중퇴는 7.5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중퇴는 10.5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전문대졸은 14년, 대학졸업은 16년, 그 이상을 18년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직기간은

1) 빈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빈곤선과 비교대상이 되는 소득은 연구자와 연구의 목적에 각기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는 자료의 제한으로 조사대상자의 응답 시점에서의 월평균 소득(시장소득)을 가구 소득으로 사용하였다.

현 직장을 구하는데 걸린 기간을 의미한다. 이 변수는 월 단위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된다.

가구특성 변수는 가구원수이다.²⁾ 이 변수는 근로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구의 총 가구원수를 의미하며, 연속변수로 분석에 사용된다.

장애특성 변수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고용유형 변수를 포함한다. 장애유형은 신체장애, 감각장애, 내부장애, 정신적 장애로 구분된다. 이 변수는 신체장애를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장애정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노동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중증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상 1급 및 2급 장애인, ②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시각·심장·정신신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을 말한다. 이 변수는 경증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한다. 장애발생시기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는지,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선천적 장애를 기준변수로 하여 분석한다. 고용유형은 장애인들의 취업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된 변수로, 일반경쟁고용, 보호고용, 기업 내 집단고용, 기타 형태로 구분된다. 일반경쟁고용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된다.

고용의 질 변수는 근로장애인의 고용형태, 직장 내 지위, 사업장 규모, 업종, 직종, 취업기간, 근로시간 변수를 포함한다. 고용형태는 응답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상용직, 임시·일용직으로 구분된다. 이 변수는 상용직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된다. 직장 내 지위는 응답자가 현 직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종사상의 지위를 의미하며, 일반사원/대리급과 과장(차장)급 이상으로 나누어진다. 이 변수는 일반사원/대리급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된다. 사업장 규모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를 말하며,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로 측정된다. 이 변수는 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으로 나누어진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라 응답자가 종사하는 직장의 산업별 분류를 표기한 것으로, 이를 연구자가 재구성하여³⁾ 농어업, 제조업, 건설·운수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교육,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기타 업종으로 나누었다. 이 변수는 제조업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된다. 직종은 응답자가 현재 종사하는 직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전문가 및 기술공,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의 7개 직종으로 나누어진다. 이 변수는 사무종사자를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된다. 취업기간은 응답자가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기간은 년 단위로 측정되며, 연속변수로 분석에 사용된다. 근로시간은 응답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의미한다. 시간 단위로 측정되며, 연속변수

2)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특성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주의 여러 특성들이 포함되나, 본 연구 분석자료인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는 총가구원 수가 가구에 대한 정보를 측정할 유일한 문항이므로, 이 변수만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3) ① 농어업: 농업, 어업, ② 제조업, ③ 건설/운수업: 건설업, 운수업, ④ 서비스업: 음식,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영화방송 및 오락문화,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⑤ 공공행정 및 교육: 공공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⑥ 금융 및 보험업, ⑦ 부동산 및 임대업, ⑧ 기타 업종: 전기가스, 도소매업, 통신업, 광업, 회원단체

로 분석에 사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용의 질 변수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 외 직장 내 지위와 사업장 규모 변수를 추가하였다. 근로빈곤은 근로자의 저임금 상태와 밀접히 관련되며(EFILWC, 2004; Langendonck, 1997; Esping-Anderson, 2002), 근로자의 저임금은 직장 내 지위, 취업해 있는 사업체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구 분	변수명	정의	변수 속성	측정
종속변수	빈곤여부	근로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절대빈곤선 이하인 경우	범주변수	비빈곤=0 근로빈곤=1
	개인 특성	성별	응답자의 성별	범주변수
결혼상태		응답자의 결혼상태	범주변수	미혼=0, 배우자있음=1 이혼 및 사별=2
지 역		사업장 소재지	범주변수	수도권=0, 비수도권=1
연 령		응답자의 연령	연속변수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년수	연속변수	
구직기간		현 직장을 구하는데 걸린 기간	연속변수	
가구 특성	가구원수	가구의 총 가구원 수	연속변수	
	장애 특성	장애유형	응답자 장애유형	범주변수
장애정도		응답자 장애정도	범주변수	경증=0, 중증=1
장애발생 시기		장애발생시기	범주변수	선천적=0, 후천적=1
고용유형		장애인의 고용유형	범주변수	일반경쟁고용=0 보호고용=1 기업 내 집단고용=2 기타=3
독립 변수	고용형태	고용되어 있는 형태	연속변수 범주변수	상용직=0 임시·일용직=1
	직장 내 지위	현 직장 내 종사상 지위	범주변수	일반직원/대리급=0 과장(차장)급 이상=1
	사업장 규모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범주변수	50인 미만=0 50~100인 미만=1 100~300인 미만=2 300~500인 미만=3 500~1000인 미만=4 1000인 이상=5
	업 종	현 직장의 산업별 종류	범주변수	8개 업종
	직 종	현 직장의 직업별 종류	범주변수	7개 직종
	취업기간	현 직장 근무년수	연속변수	
	근로시간	일일 평균 근무시간	연속변수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근로장애인의 특성과 빈곤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근로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빈곤

(1) 근로장애인의 개인특성과 빈곤

근로장애인의 개인특성(성별, 결혼상태, 지역, 연령, 교육수준, 구직기간)과 빈곤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빈곤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37.990$, $p<.001$). 결혼상태와 빈곤 여부에서는 이혼·사별을 한 장애인들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에 비해 빈곤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6.046$, $P<.001$).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빈곤층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81.888$, $p<.001$).

개인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구직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연령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빈곤 장애인이 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8.158$, $p<.001$). 교육수준별 차이는 빈곤 장애인이 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084$, $p<.001$). 구직기간 분석 결과에서는 빈곤 장애인이 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현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t=-3.581$, $p<.001$).

<표 3> 근로장애인의 개인특성과 빈곤(1)

구 분		비빈곤	빈곤	계	χ^2
성별	남	11674 (89.5)	1364 (10.5)	13038 (100.0)	37.990***
	여	1763 (85.5)	312 (15.0)	2075 (100.0)	
	계	13437 (88.9)	1676 (11.1)	15113 (100.0)	
결혼 상태	미혼	3079 (90.7)	316 (9.3)	3395 (100.0)	36.046***
	배우자있음	9613 (88.8)	1214 (11.2)	10827 (100.0)	
	이혼 · 사별	729 (83.6)	143 (16.4)	872 (100.0)	
	계	13421 (88.9)	1673 (11.1)	15094 (100.0)	
지역	수도권	7249 (91.1)	708 (8.9)	7957 (100.0)	81.888***
	비수도권	6188 (86.5)	968 (13.5)	7156 (100.0)	
	계	13437 (88.9)	1676 (11.1)	15113 (100.0)	

*** p<.001

<표 4> 근로장애인의 개인특성과 빈곤(2)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연령	비빈곤	13426	44.34	11.15	-8.158***
	빈곤	1672	46.71	11.57	
	전체	15098	44.60	11.22	
교육 수준	비빈곤	13414	11.76	3.12	22.084***
	빈곤	1673	10.11	2.86	
	전체	15087	11.58	3.13	
구직 기간	비빈곤	12943	7.13	11.22	-3.581***
	빈곤	1630	8.28	12.37	
	전체	14573	7.26	11.36	

*** p<.001

(2) 근로장애인의 가구특성과 빈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의 가구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빈곤장애인이 비빈곤장애인에 비해 가구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8.203$, $p<.001$).

<표 5> 근로장애인의 가구특성과 빈곤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가구원수	비빈곤	13437	3.29	1.33	-18.203***
	빈곤	1676	3.88	1.23	
	전체	15113	3.36	1.33	

*** $p<.001$

(3) 근로장애인의 장애특성과 빈곤

근로장애인의 장애특성과 빈곤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먼저 장애유형에 따라 빈곤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8.210$, $p<.001$).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신체장애, 감각장애인보다 빈곤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빈곤 여부와 장애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빈곤층의 비율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03.942$, $p<.001$). 장애발생시기별 분석에서는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 후천적 장애인에 비해 빈곤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48.115$, $p<.001$). 마지막으로 빈곤여부와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보호고용이나 기업 내 집단고용 형태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경쟁고용보다 빈곤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97.476$, $p<.001$).

<표 6> 근로장애인의 장애특성과 빈곤

구 분		비빈곤	빈곤	계	χ^2
장애유형	신체장애	9181 (88.8)	1157 (11.2)	10338 (100.0)	88.210***
	감각장애	2407 (90.7)	246 (9.3)	2653 (100.0)	
	내부장애	286 (91.4)	27 (8.6)	313 (100.0)	
	정신적 장애	699 (79.4)	181 (20.6)	880 (100.0)	
	계	12573 (88.6)	1611 (11.4)	14184 (100.0)	
장애정도	경증	9922 (90.5)	1040 (9.5)	10962 (100.0)	103.942***
	중증	3515 (84.7)	636 (15.3)	4151 (100.0)	
	계	13437 (88.9)	1676 (11.1)	15113 (100.0)	

구 분		비빈곤	빈곤	계	χ^2
장애발생시기	선천적	1317 (83.7)	256 (16.3)	1573 (100.0)	48.115***
	후천적	11946 (89.5)	1397 (10.5)	13343 (100.0)	
	계	13263 (88.9)	1653 (11.1)	14916 (100.0)	
고용유형	일반경쟁고용	10492 (90.3)	1128 (9.7)	11620 (100.0)	197.476***
	보호고용	317 (73.0)	117 (27.0)	434 (100.0)	
	기업 내 집단고용	1243 (82.4)	265 (17.6)	1508 (100.0)	
	기타	1331 (89.1)	162 (10.9)	1493 (100.0)	
	계	13383 (88.9)	1672 (11.1)	15055 (100.0)	

*** p<.001

(4) 고용의 질과 빈곤

다음은 근로장애인들의 고용 현황, 즉 고용의 질과 빈곤 여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형태와 빈곤 여부를 분석한 결과,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빈곤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6.166$, $p<.001$). 빈곤 여부와 직장 내 지위에서는 직급이 낮은 일반직원들이 과장(차장) 급에 비해 빈곤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270.550$, $p<.001$). 사업장 규모별 분석에는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경우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에 비해 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178.076$, $p<.001$). 다음으로 업종과 빈곤 여부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 건설·운수업,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교육,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들보다 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444.700$, $p<.001$). 마지막으로 직종과 빈곤 분석에서는 서비스·판매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고위직 및 관리직, (준)전문가 및 기술공, 사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보다 빈곤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759.077$, $p<.001$).

다음으로 취업기간, 근로시간과 빈곤 여부를 분석하였다. 빈곤여부와 취업기간별 분석 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층에 속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현 직장에서의 취업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t=29.961$, $p<.001$). 빈곤여부와 근로시간 분석에서는 빈곤 장애인들이 비빈곤 장애인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2.933$, $p<.001$).

<표 7> 고용의 질과 빈곤(1)

구 분		비빈곤	빈곤	계	χ^2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12856 (89.2)	1555 (10.8)	14411 (100.0)	36.166***
	임시·일용근로자	511 (81.5)	116 (18.5)	627 (100.0)	
	계	13367 (88.9)	1671 (11.1)	15038 (100.0)	
직장내 지위	일반직원/대리급	11262 (87.2)	1657 (12.8)	12919 (100.0)	270.550***
	과장(차장)급 이상	2164 (99.1)	19 (0.9)	2183 (100.0)	
	계	13426 (88.9)	1676 (11.1)	15102 (100.0)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	2091 (87.5)	298 (12.5)	2389 (100.0)	178.076***
	50~100인 미만	3114 (86.4)	492 (13.6)	3606 (100.0)	
	100~300인 미만	4235 (86.8)	644 (13.2)	4879 (100.0)	
	300~500인 미만	1357 (93.8)	90 (6.2)	1447 (100.0)	
	500~1000인 미만	1340 (93.6)	91 (6.2)	1447 (100.0)	
	1000인 이상	1300 (95.5)	61 (4.5)	1361 (100.0)	
	계	13437 (88.9)	1676 (11.1)	15113 (100.0)	
업종	농어업	28 (90.3)	3 (9.7)	31 (100.0)	444.700***
	제조업	5389 (92.2)	459 (7.8)	5848 (100.0)	
	건설·운수업	2741 (80.2)	677 (19.8)	3418 (100.0)	
	서비스업	2778 (88.0)	380 (12.0)	3158 (100.0)	
	공공행정 및 교육	1259 (94.3)	76 (5.7)	1335 (100.0)	
	금융 및 보험업	413 (99.0)	4 (1.0)	417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221 (83.1)	45 (16.9)	266 (100.0)	
	기타 업종	608 (95.0)	32 (5.0)	640 (100.0)	

구 분		비빈곤	빈곤	계	χ^2
	계	13437 (88.9)	1676 (11.1)	15113 (100.0)	
직종	의원·고위직 및 관리직	1070 (99.4)	7 (0.6)	1077 (100.0)	759.077***
	(준)전문가 및 기술공	1571 (98.9)	18 (1.1)	1589 (100.0)	
	사무종사자	1933 (96.6)	69 (3.4)	2002 (100.0)	
	서비스·판매종 사자	267 (92.4)	22 (7.6)	289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257 (94.9)	67 (5.1)	1324 (10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848 (83.3)	772 (16.7)	462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3391 (82.7)	711 (17.3)	4102 (100.0)	
	계	13337 (88.9)	1666 (11.1)	15003 (100.0)	

*** p<.001

<표 8> 고용의 질과 빈곤(2)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취업 기간	비빈곤	13423	7.61	7.65	29.961***
	빈곤	1675	3.72	4.57	
	전체	15098	7.18	7.47	
근로 시간	비빈곤	13426	9.07	1.87	-12.933***
	빈곤	1676	9.87	2.44	
	전체	15102	9.16	1.96	

*** p<.001

2)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근로장애인의 빈곤은 '근로장애인이 속한 가구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로 측정하였으며, 빈곤, 비빈곤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chi^2=2163.736$, $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정확도는 88.5%,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9.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특성변

수, 가구특성변수, 장애특성변수, 고용의 질 변수 대부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변수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높으며($p<.001$),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결혼상태는 이혼·사별의 경우 미혼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지역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보다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한편 구직기간은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이혼·사별한 사람들이 미혼이나 기혼자에 비해 빈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교성과 최영(2006)의 연구와 일치하며, 서울 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빈곤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노대명·최승아, 2004; 금재호, 2005)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령과 교육수준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선행연구들(EFILWC, 2004; 노대명·최승아, 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구특성변수인 가구원수에서는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구원수에 대한 분석은 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구원수가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금진호(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장애특성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장애정도에서는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장애발생시기별 분석에서는 후천적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고용유형별 분석에서는 보호고용형태가 일반경쟁고용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기업 내 집단고용 역시 일반경쟁고용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장애유형은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고용형태는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고용형태를 설명변수로 투입한 선행 연구들(노대명·최승아, 2004; 금재호, 2005; 김교성·최영,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업종별 분석에서는 건설·운수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와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았다($p<.001$). 이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때 빈곤가구에 속할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금재호(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직종별 분석에서는 (준)전문가 및 기술공은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p<.0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단순노무종사자는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이는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이 빈곤 위험이 높다는 선행연구(금재호, 2005; 홍경준, 2005)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취업기간 분석에서는 취업기간이 길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p<.001$), 이는 취업기간이 길수록 임금, 직장 내 지위 등이 향상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근로시간 분석에서는 근로시간이 길

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p < .001$), 이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홍경준(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즉 장애인들의 경우 인적자원의 취약성 때문에 오랜 시간 근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 내 지위에 대한 분석 결과, 과장(차장)급 이상 직장 내 지위가 높을수록 일반사원(대리급)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마지막으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50~100인 미만 사업장, 100~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사업장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표 9>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구 분		B	S.E	Wald	Exp(B)
개인 특성	여자(남자 기준)	0.330	0.088	13.959***	1.391
	연령	0.014	0.004	12.578***	1.015
	교육수준	-0.062	0.012	29.080***	0.94
	결혼상태(미혼 기준)				
	배우자 있음	0.122	0.111	1.210	1.129
	이혼/사별	0.590	0.148	15.924***	1.803
	비수도권(수도권 기준)	0.602	0.064	88.901***	1.825
가구 특성	구직기간	0.003	0.002	1.775	1.003
	가구원수	0.479	0.025	369.010***	1.614
장애 특성	장애유형(지체 기준)				
	감각장애	-0.103	0.090	1.300	0.902
	내부장애	-0.347	0.234	2.200	0.707
	정신적 장애	0.118	0.141	0.695	1.125
	중증(경증 기준)	0.462	0.074	39.483***	1.587
	후천적(선천적 기준)	-0.378	0.094	16.272***	0.688
	고용유형(일반고용 기준)				
보호고용	1.300	0.148	77.168***	3.668	
기업내집단고용	0.318	0.091	12.100***	1.375	
기타	0.006	0.106	0.003	1.006	
고용의 질	임시 및 일용직(상용직 기준)	0.318	0.134	5.618*	1.374
	업종(제조업 기준)				
	농어업	0.102	0.659	0.024	1.107
	건설, 운수업	1.098	0.097	128.328***	2.998
	서비스업	0.415	0.104	15.870***	1.515
	공공행정 및 교육	0.200	0.160	1.554	1.221
	금융 및 보험업	-0.714	0.527	1.835	0.490
	부동산 및 임대업	0.719	0.217	10.976***	2.053
	기타	0.441	0.231	3.630	1.554
	직종(사무직 기준)				
	의원, 고위 및 관리직	-0.610	0.458	1.775	0.543
	(준)전문가 및 기술공	-0.919	0.295	9.716**	0.399
	서비스/판매종사자	0.421	0.278	2.294	1.524
	기능원, 관련기능종사자	0.249	0.198	1.577	1.282
장차기계조작및조립	0.891	0.158	31.686***	2.436	
단순노무종사자	1.088	0.160	46.385***	2.969	

취업기간	-0.080	0.007	125.572***	0.923
근로시간	0.050	0.015	11.695***	1.051
직장 내 지위(일반/대리급 기준) 과장(차장)급 이상	-1.380	0.272	25.744***	0.252
사업장 규모(50인 미만 기준)			59.359***	
50-100인 미만	-0.286	0.096	8.905**	0.751
100-300인 미만	-0.418	0.095	19.459***	0.658
300-500인 미만	-0.963	0.147	42.774***	0.382
500-1000인 미만	-0.542	0.145	14.019***	0.581
1000인 이상	-0.917	0.174	27.620***	0.400
사례수 =13317 $\chi^2=2163.736(***)$ Nagelkerke $R^2=0.295$				

*** p<.001, ** p<.01, * p<.0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들이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저기술 등과 같은 고용 특성으로 인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근로빈곤장애인들의 특성과 근로장애인들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는 이혼·사별의 경우 미혼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보다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변수인 가구원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여성장애인들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차별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후에도 임금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특성 중 교육수준의 영향은 장애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인적자본의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교육수준은 근로자의 소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요인이다. 이에 비해 장애인들의 학력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으며 더욱이 교육수준에 따른 근로소득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어(통계청, 2005),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적자본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정규교육 및 각종 직업훈련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미 노인가구의 빈곤문제는 심각하며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홍백희, 2005; 최희경, 2004). 특히 장애는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실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자료들은 고령 장애인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장애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장애정도 분석에서는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천적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형별 분석에서는 보호고용형태가 일반 경쟁고용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내 집단고용 역시 일반 경쟁고용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은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중증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실업률이 높으며 임금수준은 다른 장애유형보다 낮은 것과 관련 된다⁴⁾. 즉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들은 취업에 어려움이 특히 크며,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질은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선천적 장애인들이 후천적 장애인에 비해 빈곤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는 선천적 장애인들이 후천적 장애인들에 비해 성장과정동안 교육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기 쉬우며, 이러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장애인들의 저임금,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보호고용형태나 기업 내 집단고용의 경우 일반 경쟁고용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장애인 고용형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사업장이나 사회적 기업 역시 일반 경쟁고용형태와 같은 임금수준, 고용의 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경쟁고용에는 어려움이 크며, 따라서 이들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가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형태는 사회통합의 의미에서 뿐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의 질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고용형태에서는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별 분석에서는 건설·운수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종사자와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 분석에서는 (준)전문가 및 기술공은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기간 분석에서는 취업기간이 길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4)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의 실업률은 각각 41.93%, 72.68%, 40.02%로 전체 실업률 23.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이 각각 47.46만원, 70.00만원, 54.84만원으로 전체 월 평균 수입 114.88만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기간이 길수록 임금, 직장 내 지위 등이 향상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근로시간 분석에서는 근로시간이 길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장애인들의 경우 인적자원의 취약성으로 오랜 시간 근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 내 지위에 대한 분석 결과, 과장(차장)급 이상 직장 내 지위가 높을수록 일반사원(대리급)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50~100인 미만 사업장, 100~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사업장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여부만이 아니라 고용의 질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임시·일용직 종사자들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의 수혜에서 제외되기 쉽다는 연구 결과들(김연명·윤정향, 2004; 김영란, 2005)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정책적 제언 외 근로장애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입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와 같은 임금보조금 형태의 조세정책을 보다 확대하여 근로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최저임금제도 역시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표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역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김영란, 2005). 우선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할 경우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통해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제도에서도 제외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근로 장애인들의 빈곤 문제를 다루었으나 자료의 특성 상 임금근로자에 대한 분석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었다. 장애인들의 경우 자영업, 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34%에 이르며, 영세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들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임금 근로자들 뿐 아니라 비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빈곤대책 역시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욱. 2002.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구조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권성욱. 2003. “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금재호. 2005.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실태”. 한국노동연구원편. 『한국의 근로빈곤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pp. 46-98.
- 김교성·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 119-141.
- 김도영. 2000.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연명·윤정향. 200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 배제와 그 대책”.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pp. 359-387.
- 김영란. 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 41-69.
- 남기민. 2005. “한국사회의 사회적 배제와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 56: 121-142.
- 노대명·강병구·강석훈·홍경준·최승아·주연선·구지윤. 2005. 『2004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최승아. 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운진. 2004. “빈곤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어수봉·최영섭. 1995.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유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 분석: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이병화. 2006. “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병희. 2005. “빈곤계층의 경제활동상태와 빈곤 탈출”. 한국노동연구원편. 『한국의 근로빈곤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pp. 99-118.
- 이선우. 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33: 287-313.
- 이승신. 2003. “장애 빈곤가구의 빈곤심화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재라. 1999. “실업장애인가구의 빈곤실태와 소득 관계요인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채식. 2005. “정신지체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취업알선서비스 경험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진호. 2005. “근로빈곤과 최저임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편. 『한국의 근로빈곤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pp. 119-140.
- 최희경. 2004. “노인의 빈곤요인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통계청. 2005.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미현. 2004. “장애인근로자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한민아. 1998. “한국의 저소득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평가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 57: 275-290.
- 황덕순. 2005. “절대빈곤층의 규모 및 특성”. 한국노동연구원편. 『한국의 근로빈곤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pp. 4-45.
- Esping-Anderson, Gosta.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4. *Working Poor in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ILO. 2002. Disability and Poverty and Reduction Strategies: How to ensure that ac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cent work and productive work is part of the PRSP process. Geneva: ILO.
- Langendonck, J. V. 1997. *The New Social Risks. EISS Yearbook 1996*. Kluwer Law International.
- OECD. 2003.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Policies to Promote Work and Security for Disabled People*. Paris: OECD.
- Ruggles, P. 1990. *Drawing the Line: Alternative Poverty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Stapleton, D. 2006. “Long-Term Poverty and Disability Among Working-age Adults”. *Twenty-Eighth Annual APPAM Research Conference*.
- Venter, C. J., Rickert, T. E., Bogopane, H., Venkatesh, A., Camba, J., Mulikita, N., Stone, J., Maunder, D. 2002. *Enhanced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Urban Areas*.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K) Engineering Knowledge and Research.
- Welch, P. 2002. *Applying the Capabilities Approach in Examining Disability, Poverty, and Gender*. Von Hegel Institute, University of Cambridge.

Determinants of Poverty Among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Kim, Jong-Jin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Park, Ja-Kyung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Although linkages between poverty and disability are often noted, until recently they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examined in Korea. Many people with disabilities tend to become poorer because they lack access to jobs. And income support programs are not sufficient. But more severe is people with disabilities in labor market tend to be po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and to identify the major determinants of poverty. For this, '2005 Survey on the Workers With Disabilities' was used.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 ag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region where they live, the number of the household member, the severity of disability, the onset of disability are significant predictors in determining their poverty status. Also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type, industry type, numbers of years in current job are major determinants of their poverty status.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Poverty and Disability,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Determinants of Poverty

[논문접수일 2006. 10. 13. 게재확정일 2006. 12. 26.]